

전시회 ▶5면

IFA 2016 화두는 IoT 중심의 ‘스마트홈’

특집 ▶6면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오피니언 ▶7면

[칼럼] 방송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상파 UHD 방송 ‘부실·줄속’ 추진 안 돼

KBS, 지상파 UHD 방송 일정 연기 요청

KBS 직능단체 “설익은 지상파 UHD 본방송, 누구를 위한 실시인가?”



■얼마 전 전남 영광군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한쪽으로 기울며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다. 그나마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수대교의 악몽이 떠오르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성수대교 붕괴 21년, 삼풍백화점 붕괴 2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실시공에 의한 건설 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축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부실 줄속 공사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산재돼 있다. 내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UHD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에 맞춰 줄속으로 추진하다가 세계 최초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 4사는 KBS 1TV, KBS 2TV, MBC, SBS, EBS 등 5개 채널에 대한 UHD 방송국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UHD 방송국 허가는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UHD 방송에 적용될 표준 방식을 북미식인 ATSC 3.0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

치로 UHD 방송국 허가가 나오면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인 평창과 강릉, 그 외 사군 지역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순차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2월 수도권 본방송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KBS는 8월 26일 방통위에 UHD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KBS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UHD 공시청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조치인 UHD 수상기 안테나 장착 역사가 전사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실제로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부분으로 시청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역시 “지상파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데 시청자들이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신 환경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내장 안테나를 설치해 누구나 UH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UHD 방송 제작·송신 환경이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점도 본방송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광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본지 기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방송 방식이 결정되면 표준 제정 단계를 거쳐 송수신정합실험으로 검증한 뒤 무선설비규칙을 제정하고 무선국 검사 항목과 기준을 정하는데 현재는 모든 플랜이 내년 2월 본방송에 맞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방송사에서도 시스템 설계, 입찰 및 계약, 송신기 제조, 송신소 시설, 준공 검사 등이 완료돼야 하는데 고출력 송신용 RF 필터 제작에만 8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 일정대로는 제대로 된 UHD 방송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도입’이라는 거대 담론에 의해 그리고 ‘700MHz 지상파 할당’이라는 사회적 부담에 매몰돼 향후 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BS 역시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UHD 방송이기 때문에 인프라의 대부분이 시제품급이고, 국제 표준이 미비한 SFN 핵심 장비들로 인해 불안정하게 방송을 제작·송출·송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UHD 개국, 혼란 없는 UHD 방송을 위해선 DTV 도입 시 방송 방식 논쟁은 물론 약 14개월간의 시험 방송을 거친 DTV 시험 방송 사례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방송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UHD 본방송 연기와 UHD 특별별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ATSC 3.0 표준이 적용된 UHD TV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시판될 것”이

라며 “기존 유럽식 UHD TV를 구입한 시청자들은 UHD 방송을 위해 따로 수신기를 구입해야 상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면서까지 UHD 방송을 추진해 창조경제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정부의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에 줄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UHD 방송 전환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BS 직능단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600여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KBS가 무모하게 따라가기식 UHD 투자를 하다가는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신료 동결, 광고 수익 급락, 제작비 급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조 1,817억 원으로 추산되는 UHD 투자를 성급하게 하다가는 경영 악화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수익이 급락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UHD 전환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될 가전사와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KBS 직능단체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됐던 HD 전환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방송 발전에 기여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UHD 전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손을 내밀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며 “KBS의 미래를 정부의 무모한 ‘선 시행 후 수습’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공지] 추석 연휴 관계로 방송기술저널 239호는 9월 28일에 발행됩니다.

‘지상파 중간 광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전인

코바코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해야”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상파 중간 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희복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9월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의뢰한 ‘규제 개선을 통한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매체 정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방송 및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유료방송 광고 시장이 연평균 18.2% 성장하는 동안 지상파 광고 시장은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CJ E&M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역전하는 등 방송 광고 시장이 급변했다”며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광고 간 비대칭 규제의 근거가 된 지상파의 시장 지배적 위치가 해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요 방송사 광고 누적 매출액을 추산한 결과 CJ E&M이 약 1,345억 원으로 KBS(1,237억 원)와 SBS(1,150억 원)

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7월까지 지상파 3사의 광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CJ E&M의 광고 수익 중 약 60%를 차지하는 tvN의 광고 단가를 보면 (중간 광고 등 일부는 지상파 단가를 넘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등은 지상파 단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 수익을 앞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CJ E&M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상파 독과점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방송 및 광고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책 형평성 △양질의 콘텐츠 제공 △중간 광고에 익숙한 시청자 △광고 산업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의 시장 지배적 위치가 무너지 매체 환경에서 정책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에는 허용되고 있는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만 금지한 차별적 규제의 완화가 요구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상파의 자원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이미 중간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이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 광고가 도입되면 2015년 광고비 기준 791억 원이 증가하고, 이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계수에 적용해 계산하면 생산유발효과는 94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5억 원이 증가한다. 또한 신규 일자리는 614개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가 주최한 ‘광고 제도 개선 및 중간 광고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상파에 중간 광고가 도입되면 연간 신규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 전체 경제 생산유발효과는 1,533억 원, 방송 산업 매출 786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중간 광고 도입

에 대해)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근 지상파 방송 광고의 급격한 침체는 지나치게 유료 방송에 유리하게 적용된 비대칭 규제에

기인한 부분이 크며 지상파와 전체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간 광고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전 안내 공지

전국의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등 45개 방송사 4,500여 명의 기술인들로 구성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국이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소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팩스번호 02-2647-6813
홈페이지 www.kobeta.com(연합회)

전화번호 02-3219-5635~42
이 메 일 kobeta@naver.com



박근혜 대통령 “불합리한 규제 조속히 철폐돼야” 한국방송협회, 제53회 방송의 날 축하연 개최



©방송 화면 캡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요구가 빚발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방송은 명품 콘텐츠의 생산기지이자 한류의 전초기지”라며 질 좋은 콘텐츠 생산이 가능토록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진행된 축하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방송계 및 방송 유관 기관 인사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전에 보낸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우리 방송이 있으며 이러한 발전과 결실을 위한 방송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방송인들이 가진 특유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시장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수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명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지상파방송은 세계 속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문화 콘텐츠가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방송협회와 회원사는 양질의 콘텐츠와 최첨단 UHD 방송으로 사랑과 지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지만

는 것으로 신호가 더 멀리 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ETRI의 LDM 기술을 적용하면 신호의 세기가 약해 방송이 나오지 않던 음영 지역 등의 해소가 가능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방송 권역이 확대되거나 테이터를 그만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시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국방 방송사뿐 아니라 캐나다의 CRC, 중국의 NERC-DTV 및 상해교대중, 스페인의 바스크 대학(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등이 참석. 계층분할다중화(LDM)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허남호 ETRI 방송시스템연구부장은 “하나의 채널을 통해 UHD 방송과 이동 HD 방송을 동시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핵심 기술 연구에 크게 기여한 김휘웅 박사가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연구진은 Full-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4K-UHD 영상을 초당 60P(프레임) 속도로 실시간 압축해주는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 인코더 기술과 Full-HD 영상상 4K-UHD로 고품질 변환해주는 엔스케일링 기술을 확보해 2015년까지 다수 기업에 이전한 바 있으며, 이로써 외산 일찌언인 방송 장비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로 방송 장비 시장 진출도 가능케 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수평만수직면 모두 입체음향을 제공해 주는 10.2세대 입체음향 서비스와 다이얼로그만 따로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효율 오디오 코딩(MPEG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매체 무한경쟁으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 제작비의 지속적 증가 속에 UHD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상파의 중간 광고 금지라는 비대칭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하연에서는 현재 실험 방송 중인 지상파 UHD 방송을 기존의 실외 안테나 없이도 UHD TV 자체에 안테나를 내장한 방식과 TV 전원선을 안테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모델들이 시연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가 1947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부터 ‘HJ’이라는 독자적인 콜사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방송에 관한 독립적인 주권을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에 제공하는 본 기술을 활용하면 송출 비용 절약 뿐만 아니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TRI는 해당 기술을 방송 분야 국제표준기구인 ATSC에 상정,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ATSC 3.0 국제 표준의 기반(baseline) 기술로 채택됐으며 9월 현재 제안된 표준(Proposed Standard)으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ETRI는 “LDM 기술을 포함한 ATSC 3.0이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ETRI는 핵심 표준확보 확보를 통한 기술로 창출과 초기 ATSC 3.0 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mjikang@kobeta.com

-H 3D Audio) 인코더 기술을 최근에 개발 완료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ETRI는 “UHD 방송과 이동 HD 방송뿐 아니라 3D UHD 방송도 별도 데이터 전송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융합형 3D 방송 기술까지 확보해 ATSC 3.0 국제 표준에 반영했다”며 “이로써 시청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안치득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TV 수 출세 1위를 하고 있다”며 “도래하는 UHD TV 시장에서도 우리의 핵심 기술로 적어도 매년 수십억 원씩 약 15년간 기술로 창출과 동시에 새로운 장비 시장의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제4회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화이트 스페이스 자유롭게 활용”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 위해 DTV 채널 재배치”

“지역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화이트 스페이스 민간 활용 가능”



TV 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무선 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8월 24일 오후 정부서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 채널 재배치(안) △TV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 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사물 인터넷(IoT), 무인 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용 주파수 분배(안) △3400~3700MHz 대역 주파수 회수(안)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에 앞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평창) 등 전국 사군 지역에 대해 현재 DTV 채널용으로 쓰고 있는 470~698MHz 대역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해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쓰지만 울산과 강원 등 11개 권역에서는

전파 혼선 문제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어려워 DTV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울산과 강원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시 군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 채널을 재배치해 해당 권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파수 재배치가 돼도 채널 번호는 바뀌지 않아 일반 시청자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DTV 채널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민간이 무선 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분배 방안은 DTV 대역을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어촌이나 섬 지역 등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융합 압축 기술(MPEG-H 3D Audio)을 개발해 UHD TV에 적용했다. 따라서 향후 UHD TV에 들어가는 영상 및 융합 압축 기술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두 개의 기술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LDM 기술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NAB Show 2015에서 ‘NAB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방송 미디어 관련 세계 최대 학회인 BMSB 2012, 2014, 2015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했다. 영상 압축 기술도 지난 5월 제51회

실제로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 인터넷, 공영 시설 및 산물 감시용 무선 CCTV, 원격 검침 등 화이트 스페이스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 ICT 융합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IoT나 드론,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주파수 339MHz 폭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되던 혼신을 방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IoT용 주파수는 비면허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만 받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드론의 경우 위성을 이용해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 제어용 주파수와 영상 촬영을 위한 드론 전용 주파수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센싱(레이더)용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고, 통신용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ICT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는 9월 중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KBS, MBC, SBS 등이 사용한 이동방송

방송기술용어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Hololens)와 트랜스포테이션(Transportation)의 합성어로 실제체의 3D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증강현실(AR)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정적인 객체를 인식해 3D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상현실 3D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나 동적인 객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겪어 왔다.

전속취 sh45@kobeta.com

OBS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리하고 카드 꺼냈다

사측 기승전 ‘인력 감축’ 주장 VS 노조 “생존 방안 없이 구조조정만 강행” 비판 OBS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역차별 받는 OBS 지원책 내놓아야”



재정난을 겪고 있는 OBS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리 하고 카드를 뽑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40% 가까이 구조조정 이 이뤄진 상황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지난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까지 반납 하는 등 자구 노력도 선행된 상태에서 사측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OBS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7월 초 노조에 정리 하고 일정을 통보했다. 9월까지 30명을 해고 하고, 연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추가로 2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7월 18일부터는 근속 1년 이상의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해 현재까지 6명이 회사를 떠났다.

OBS 노조는 “사측이 설명회를 통해 ‘30명을 해고할 경우 올해 10억의 적자가 난다’고 설명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50명 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200여 명의 정규직원 중 1/4을 자르겠다는 계획은 불가피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1인당 매출을 총매출÷인원수로 산출했을 때 OBS의 경우 라디오 수익과 콘텐츠 재생산(CPS),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없어 다른 민영 방송사에 비해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매출액도 적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래된 자체 편성과 제작 구조를 반영한다면 PD 1인당 편성 시간은

송 광고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며 “자체 제작 비율이 41.5%(2012년 기준) 인 OBS를 결합판매비율과 연계할 경우 결합판 매비율을 2.5% 올려 광고 매출을 139억 원 증분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방통위 부는 지난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까지 반납 하는 등 자구 노력도 선행된 상태에서 사측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OBS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7월 초 노조에 정리 하고 일정을 통보했다. 9월까지 30명을 해고 하고, 연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추가로 2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7월 18일부터는 근속 1년 이상의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해 현재까지 6명이 회사를 떠났다.

OBS 노조는 “사측이 설명회를 통해 ‘30명을 해고할 경우 올해 10억의 적자가 난다’고 설명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50명 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200여 명의 정규직원 중 1/4을 자르겠다는 계획은 불가피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1인당 매출을 총매출÷인원수로 산출했을 때 OBS의 경우 라디오 수익과 콘텐츠 재생산(CPS),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없어 다른 민영 방송사에 비해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매출액도 적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래된 자체 편성과 제작 구조를 반영한다면 PD 1인당 편성 시간은

재허가 조건 불이행한 OBS 과징금 4,000만 원 경영 위기 반영해 1,000만 원 감액

심각한 경영난으로 고사(枯死) 위기에 빠진 OBS가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증자와 현금 보유액 유지를 지키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신 최대주주가 투자약속서를 제출했으나 구 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고, 이행 시기 역시 명시하지 않아 방통위에서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기로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OBS 노부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재허가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을 미이행 하고 시청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진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2014년까지 50억 원 증자, 현금 보유액 87억 원

‘유료방송 발전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결합상품 제도 개선, 케이블 광역화, 유료방송 소유 지분 규제 폐지 등 논의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을 통해 연내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주로 내놓고 있는 방안은 동등결합 등 이 동등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케이블 광역화, 유료방송 소유 지분 규제 폐지 등이다.

결합상품은 통신과 진 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가입해야 따로 써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입자 유지 효과가 높아 방송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다. 케이블 업계는 케이블과 이동통신사의 상품을 묶는 동등결합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CJ헬로비전의 케이

다만 케이블 사업자들이 각각의 결합 상품을 만들

KNN과 TBC의 2배 수준이고, 기술직 1인당 편성 시간도 10,558분으로 KNN(6,776분)과 TBC(4,776분)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OBS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7월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OBS 노조는 “사측이 2016년 재허가 신청서에 명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7년 OBS 직원 수는 209명으로, 2013년 재허가 심사 시 인원 292명의 70%, 2007년 개국 당시 인원 415명의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415명이란 인원은 100% 자체 편성, 40% 자체 제작, 1400만 가시청 인구를 고려해 산출된 인력 규모인데 415명이 하던 일을 209명이 맡아 100% 자체 편성과 40% 자체 제작을 유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프로그램 제작 포기 선언 안과 다를바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정리 해고를 위해 테이터를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1인당 매출을 총매출÷인원수로 산출했을 때 OBS의 경우 라디오 수익과 콘텐츠 재생산(CPS),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없어 다른 민영 방송사에 비해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매출액도 적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래된 자체 편성과 제작 구조를 반영한다면 PD 1인당 편성 시간은

현재 OBS 노조는 사측이 정리 해고를 강행할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8월 22일 7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OBS 노조는 “이번 정리 해고는 경영의 긴박성, 해고일, 해고자 선정 등에서 부당 해고인양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사측이 정리 해고를 강행한다면 조합은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본 잡식 상황이고, 재생산 조건 중 일부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4,000만 원으로 감면했다.

감식전 상임위원은 “OBS가 방만 경영을 해 재허가 조건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었다”며 “특히나 OBS는 100% 자체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OBS는 개국 후 9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 1,431억 원 가운데 약 97%를 잡식 당했으며 개국 당시 415명이던 방송 인력은 현재 260명으로 이미 40% 가까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 12%를 반납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는 “OBS의 위기에

비는 언제 고갈 날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비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 부족으로 기술국장도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회사 경영의 실패를 예도다 시 직원들이 질여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을 내보낼 생각보다 수익 구조를 개발해 막대한 물고를 선순환으로 돌려낼 생각을 하라”며 “스마트미디어랩(Smart Media Representative, SMR), CPS, 결합판매 고시 변경 등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촉구했다.

노조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OBS 사측이 증자와 현금 보유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OBS 직원들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광고결합판매비율 상향 조정을 주장했으나 방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OBS 경영진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OBS 경영진이 수입 다각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른 방안을 찾기보다는 구조조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의무재생신 △10번째 황금 채널 배정 △1사 1미디어랩 통한 광고 직접 영업 △쌍

간광고 해자 등 △편성 특별 △방송 심의 특별 △합법기 문제와 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광고 매출을 올리는 종합편성채널과 비교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OBS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유진영 OBS노조 지부장은 “미디어랩 최대 피해자는 OBS”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의 조정,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OBS만 CPS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CPS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OBS 노조는 사측이 정리 해고를 강행할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8월 22일 7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OBS 노조는 “이번 정리 해고는 경영의 긴박성, 해고일, 해고자 선정 등에서 부당 해고인양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사측이 정리 해고를 강행한다면 조합은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본 잡식 상황이고, 재생산 조건 중 일부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4,000만 원으로 감면했다.

감식전 상임위원은 “OBS가 방만 경영을 해 재허가 조건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었다”며 “특히나 OBS는 100% 자체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OBS는 개국 후 9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 1,431억 원 가운데 약 97%를 잡식 당했으며 개국 당시 415명이던 방송 인력은 현재 260명으로 이미 40% 가까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 12%를 반납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는 “OBS의 위기에

방통위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OBS 노사가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광고결합판매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에서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OBS 노사와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은 “방통위가 실시한 ‘방송 광고 지원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자체 제작 비율이 높은 방송에 대해 광고결합판매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방안은 OBS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방송의 자체 제작을 전인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OBS의 생사가 걸린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고시에 반드시 용역 결과를 반영해 수도권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OBS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전속취 sh45@kobeta.com

지 아니면 하나의 원케이블 상품으로 결합할지는 논의가 분적돼야 하다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블TV 위가극복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1차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업자라는 케이블의 한계를 ‘원케이블(One Cable)’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 채널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결합상품 금지 등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 광역화도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재 78개의 사업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 허가받은 구역의 범위 외에 인접 구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 상의 바탕을 둔 케이블 산업은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각자의 권역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하려면 뒤 지역 SO로 다시 가입해야 했다. 이에 대한 학계 전

문가는 “케이블과 IPTV의 서비스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한 사업자는 78개 권역으로 나눠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한 사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케이블 권역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케이블 산업 내의 경쟁이 유료방송 전제로 확산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케이블 산업 내에서도 광역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업계 이슈로 떠오르다면서 윤 하반기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케이블TV 위가극복 비상대책위원회는 케이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31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케이블 전략을 중심으로 결합상품 제도 개선, 지상파 재생신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 아날로그 방송 종료율 위한 지원 등이 담긴 자구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7년 방통위 예산안 2,366억 원…전년 대비 4.1% 증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 위해 1,033억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2,366억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월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예산 대비 93억 원(4.1%) 증액된 2,366억 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0.5%(3억 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 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통신 분야 예산이 7.6%(45억 원) 증가했고, 방송 분야 예산은 2.9%(48억 원) 증가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

록했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의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 스팸차별적인 단발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

방통위를 이룰 위해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송 정보 활용 기반 마련(6억 원) △ICT 융합 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위치 정보 산업 기반 조성(13억 원) △유해 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3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분배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KBS 대외 방송 지원(190억 원) △EBS 2TV를 포함한 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399억 원)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414억 원) △지역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3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해선 △사청각 장애인에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95억

원)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120억 원) △창조경제의 주축들인 우수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30억 원)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94억 원) △불법 스팸 피해 방지 분야(30억 원) △실성할 속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77억 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백신하 baek@kobeta.com

구설 끊이지 않는 ‘미래부’

미래부, 비위(非違) 직원 ‘직위해제’ 조치

산하기관과 낯설 일삼고 근무지 이탈하는 등 공직 기강 위반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 해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위(非違)

행위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중징계에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직원의 공직 기강 위반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위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비위 행위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 9월 2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매우 불량한 자, 형사 사건에 기소된 자, 징계 약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 신분을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직권면

직의 방법을 통해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파면, 해임, 강등, 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부에 따르면 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탐장은 올해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중식 이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음주를 하다가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6차례에 걸쳐 특별한 업무 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를 산하기관에서 무단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미래부는 최근 사무관 갑질, 간부의 성매매 의혹 등 소속 공무원의 일탈과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자 6월 20일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

위 재발 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서약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의 대회 이후 갑질 행위 등이 재발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이후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비위에 연루된 사건만 약 180여 건에 달한다는 미래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미래부 산하기관 또다시 구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외유성 출장으로 국민 혈세 낭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17개 정부출연연구소 직원 21명이 국외 출장에 자녀를 동행하는 등 외유

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무조정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의 조사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과다 지급된 여비 3,600여만 원을 각 기관에 반납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래부 출범 이후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평가에 육성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으로 이외에 최근

1년간 131여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출장비로 부당 수령하고,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 당일 심사위원과 채용 인원을 변경하는 등 반만한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기강 해이와 비위가 발생되고 있어 공직 기강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유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각 산하기관을 조사, 확인해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소속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간부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이 민간 근무 휴직제를 통해 편입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는 등 기강해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최악의 미래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하고 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섰지만 별 효력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제주 극동방송·대전 국악방송, 신규 FM방송국 심사 ‘허가’ 심사 결과 반영해 미비한 부분은 허가 조건 부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재)극동방송과 (재)국악방송이 각각 신청한 제주표준FM방송국과 대전FM방송국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고 미래부 기술 심사도 충족해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몇 가지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재)극동방송의 경우,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편성,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재심의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하

고 직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국악방송의 경우,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직원 교육이 요구되며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사의 허가 유효 기간은 신규 허가인 점을 고려해 두 방송국 모두 3년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방송기술교육원 이전 안내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 10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주 소 서울 목동 방송회관 10층
전화번호 02-3219-5640~1
팩스번호 02-2647-6813
이 메 일 bea@kobeta.com
홈페이지 edu.kobeta.com



‘BCWW 2016’ 사흘간 일정 성공리에 마쳐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 첨단 영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인 ‘국제 방송 영상 견본 시(BroadCast WorldWide, BCWW) 2016’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BCWW 2016은 우수한 국내 영상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국내 영상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대표 국제 마켓으로 해외 바이어 확보와 방송 시장 진출의 다각화를 시도하려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KBS와 MBC, SBS, EBS 등 국내 지상파 4사를 비롯해 JTBC 등 종합편성 채널이 전시사로 참가했으며, 해외에서는 영국 BBC Worldwide와 일본 NHK 등이 참여하는 등 전 세계 약 50개국 240개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문진은 “올해 마켓은 세계 50개국, 191개 회사가 참가한 지난해 마켓의 계약 실적인 3,757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s) 뉴미디어 솔루션, 첨단 영상 기술 관련 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의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시회뿐 아니라 ‘콘텐츠, 한계는 없다!(Contents, Infinite Possibilities)’라는 주제로 마련된 콘퍼런스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8월 31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워너브러더스 텔레비전 그룹(Warner Bros. Television Group)의 크레이그 휴네그스(Craig Hunegs) 사업전략 부문 사장과 씨제이엔엠(CJ E&M) 안석준 대표가 기조강연 연사로 나서 각각 ‘미디어의 다변화 기회-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과 ‘케이(K)-포맷의 비상-방송콘텐츠와 케이팝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같은 날 열린 ‘방송작가 국제포럼’에서는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프로듀서 마이크 엘렌버그(Michael Ellenberg)와 <슈츠>의 총괄 프로듀서 킨 클라인(Gene Klein)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린 강연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9월 1일에는 엔데몰-샤인 그룹 마사 브래스(Martha Brass) 대표와 아이티비엔(ITT) 마이크 빌(Mike Beale) 수석 부사장이 등 세계 포맷 전문가들이 전 세계의 포맷 제작 현황과 성공 사례를 논의하는 ‘국제포맷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포맷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인터내셔널 피칭’과 우수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콘텐츠 투자설명회(IRR, Investor Relation)’ 등이 열려 참여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방송 영상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방송 영상 산업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IFA 2016 화두는 IoT 중심의 ‘스마트홈’

가전의 꽃 TV 시장은 ‘퀀텀닷 VS 올레드’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꼽히는 국제가전전시회(IFA)가 9월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화두는 단연 사물 인터넷(IoT)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홈’이었다. 삼성전자는 ‘케프의 테이블’이라는 쿡싱고를 열고 패밀리 허브 신제품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이미 출시된 패밀리 허브는 식재료 보관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방장과 외관에 부착된 LCD가 일종의 태블릿 P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전 제품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다. LG 전자도 스마트홈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바존과 손을 잡았다. LG전자는 국내에 출시한 ‘스마트싱크 센서, 스마트싱크 허브’에 아바존의 IoT 서비스를 결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싱크 허브에 아바존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알렉사’를 연동해 사용자 음성만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H&A사업본부장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해 고객들에게 LG만의 차별화된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업체들도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들을 선보였다. 말레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연결한 애플리케이션 ‘밀레@모바일’을 공개했고, AEG는 오퍼 오퍼 정도 등을 설정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와 오븐 신제품 등을 내놓았다. 보쉬와 지멘스는 음성 인식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주방 도우미 ‘마이크’를 공개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라는 주제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인 파나소닉은

스마트폰으로 집안 보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선보였다. IFA는 이외에도 ‘스마트홈’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해 다양한 중소 업체들이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퀀텀닷? 올레드? ... 향후 시장을 책임질 TV는?

가전제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TV는 퀀텀닷과 올레드의 경쟁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퀀텀닷은 스스로 빛을 내는 미니머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색 순도 및 광 안전성이 높아 천연 색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OLED처럼 천연색에 가까운 100% 수준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한 퀀텀닷 TV는 기존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만 추가하면 된다. 별도의 살비투자가 필요한 OLED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색재현성을 유지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퀀텀닷 TV의 대표주자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퀀텀닷’으로 차세대 TV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퀀텀닷의 기원’을 주제로 브라운관(CRT)-액정표시장치(LCD)-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유기발광다이오드(OLED)-퀀텀닷’ 등으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TV 시장은 소재의 안정성이 높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사용량 대량 생산 가격 등에서 유리한 무기를 소재가 시장을 이끌어 왔다”며 “퀀텀닷이 대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V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업체들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도 퀀텀닷 TV를 선보였다. 하이센스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자사 UHD LCD TV를 ‘ULED TV’로 소개하면서 NTSC 기준 105%의 색 재현율을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소비량은 올레드 TV의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TCL도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65인치 커브드 HDR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빛 반사율을 0.9%로 억제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오디오 업체 JBL의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한 이 제품으로 TCL은 올해의 기술 혁신상 금상을 받았다.

LG전자와 파나소닉, 중국의 창홍 등은 올레드(OLED) TV를 선보였다. OLED TV는 LED의 백라이트유닛으로 OLED를 사용하는 TV로 직접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의 표현 범위가 LED보다 더 크며, 응답 속도도 LED에 비해 1,000배나 빠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LG전자는 입구에 올레드 사이니지 216대를 이용한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압도적인 화질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엔 전시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올레드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 한 장만을 붙여 얇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으며, 제품 뒷면의 패널과 스탠드에는 은은한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바이올렛 다이아’ 디자인을 적용해 유리 조형 작품은 영상사기도록 했다. LG전자는 “내년 1월 미국의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는 LG전자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자적인 하이드라플

랫폼으로 차별화된 올레드 TV를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나소닉의 경우 전시 부스 중앙과 측면에 4K OLED TV를 선보이면서 자사의 이미지 처리 기술에 할리우드와의 협업을 더해 예측불허 고화질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루닉, 뢰베, 메츠 등 독일 명품용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OLED TV를 선보이긴 했지만 시장 판매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차별화된 기술로 더 나은 OLED TV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중국의 창홍, 하이얼, 하이센스, TCL 등이 공개한 제품들은 대다수 기대 이상이라는 평을 받았다. 화질만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LG전자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다만 화질 외 기능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등도 이번 전시회에서 각기 하나의 축을 이뤘다. 특히 이번에는 가전전시회 최초로 자동차 업체 수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제품 간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조연설에 나선 디터 체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 겸 다임러AG 회장은 “벤츠가 보는 향후 자동차 또는 스마트카의 역할은 각종 업무나 공식 스케줄을 관리해 주고 개인의 운동 및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자율주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In Car Office’ 서비스를 선보였다.

백신하 baek@kobeta.com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조명 부문에 나재희(MBC), 기술진흥 부문에 안성준(SBS) 수상



‘방송의 날’을 맞아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9월 2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됐다.

한국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진흥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가 1973년부터 주최한 방송시상식으로 ‘한국의 에미상(E Emmy Award)’으로 불리기도 한다.

KBS ITV로 생중계된 이번 시상식은 이현주 KBS 아나운서, 이성배 MBC 아나운서, 최기환 SBS 아나운서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대표 아나운서가 공동으로 진행을 맡았다.

대상의 영예는 SBS의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및 연속 보도’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SBS의 해당 보도가 KF-X 사업의 부실을 조기에 밝혀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여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요 부문 작품상에는 △예능 버라이어티 KBS 《박2일》 △장편 드라마 SBS 《육룡이 나르샤》 △중단편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 MBC 《그녀는 예뻤다》(공동수상) △연예오락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연예오락 RD SBS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어린이 EBS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 등 23개 부문 26편이 선정됐다.

개인상에는 △조명상 나재희(MBC) △기술진흥상 안성준(SBS) △가수상 음악대장(하현우) △진행자상 김석훈(SBS 공급한 이야기Y) △아나운서상 박재홍(CBS) △연기자상 황정음 △코미디언상 홍윤화 등 19개 부문 19인이 선정됐다.

MBC <2015 DMC 페스티벌> 등의 조영감독을 맡은 나재희 MBC 영상기술부 차장은 독창적인 조명 큐시트 작성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Mythos’라는 최신 장비 설계로 고품질 조명 연출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선택 2016 국회의원 선거 방송〉에서는 각 코너별 인물 조명을 LED 조명으로 설계해 장시간 생방송에도 안정성과 전력 효율, 일정한 색온도 구현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안성준 SBS 뉴미디어개발팀장은 정보부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TV 상용 서비스 계획에 부응해 ATSC 3.0 헤드엔드 송신 시스템 기술 개발 조

작수, 국내 방송 장비 업체들로 구성된 ‘SBS ATSC 3.0 컨소시엄’ 구성, 자체 대 방송 송수신 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국산화 선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나 감독은 “빛의 물리적 현상 즉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직진, 분산, 합성, 산란 등을 이용해 창의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해 다양한 조명 기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희귀하고 재미있는 일이 조명”이라며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MBC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총선과 리우 올림픽 그리고 내년 2월에 있을 지상파 UHD 본방송 준비 등으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지상파 UHD 본방송에서 난제로 꼽혔던 SFN 기술도 국내 방송 장비업체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 가전사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2월 본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UHD 방송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장비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알아봅시다〉

방송의 날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다. 언뜻 우리나라 최초로 방송을 할 날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의 개국일은 1926년 2월 16일로 날짜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9월 3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4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주최로 미국 애클랜드에서 열린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호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민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로서 전파 주권을 인정받은 날, 바로 9월 3일이었다.

하지만 방송의 날이 처음부터 9월 3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호출부호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1947년 10월 2일이기 때문에 첫 방송의 날은 10월 2일이었다. 그리고 1978년, 주파 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살려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제정하고 현재까지도 방송 주권 독립이라는 그 큰 뜻을 기리고 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칼럼



오성진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The buck stops here.”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명언이다. 여기서 buck의 사전적 의미는 ‘포커 등에서 패를 돌릴 차례가 된 사람에게 두는 물건’이라고 한다. 아마도 Winner Deal이 아니라 Order Deal인 경우에 순서를 기억하기 위한 물건인 것 같다. 따라서 직역하면 “내 차례야”라고 해석이 되며, 의역을 하면 “내 책임이야”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대통령이란 자라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사건-사고는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어려워지는 현재 상황에 더욱 절실한 요구되는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이 엄청 들어갔지만 값나만 못한 사업들, 심지어 원상 복구 위해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까지 벌어지지만 속 시원하게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귀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혹자는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험조성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누구 책임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이 생긴다.

방송사 TV, Radio, DMB나 UHD TV 주조정실에 여러 번 있어 본 적이 있다.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체험한 것이므로 참관 정도로 이야기할 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최대한의 텔레캅스(관용)가 발휘되는 문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라아만 올바른 원인 파악이 되고 그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이 방지된다. 얼마 전 전화존 동아대 교수의 ‘누가 세계 최고 리튬이온을 올렸나’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가장 슬픈 장면으로 선수들이 실책을 하고는 바로 감독을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책 후에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에게 혼날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 나가는 글로벌 회사들은 실수나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 사고대책회의에서의 기본 목표는 원인 분석이 징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더 큰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징계의 비중도 만만하지 않기에 공익(?)을 위해서 ‘장비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방송 장비는 일반 가전제품이 아니므로 Mal-Function이 노후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하지만 장비의 문제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올바른 원인 분석이 잘 되려면 개의 테이프로 나눠서 와도 시청률이 좋으면 그 책임 소재는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다. 엔지니어는 이 경우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주조정실 엔지니어가 시청률을 고려해 시청률 좋은 프로그램 송출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저 그런 프로그램 송출은 건성건성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주조정실 시스템이 복잡해진 환경에 더욱 절실한 요구되는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이 엄청 들어갔지만 값나만 못한 사업들, 심지어 원상 복구 위해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까지 벌어지지만 속 시원하게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귀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혹자는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험조성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누구 책임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이 생긴다.

방송사 기술 부문 엔지니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방송 사고’일 것이다. 그래서 방송 사고 문제는 다루기 민감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현업 경험이 일천한 필자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일야 조깅’이 얼마나 생체리듬을 파괴하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그러하기에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분석이 사이비처럼 보였으면 “The buck stops there.”이다. 아~ 물랑!

사설

지상파 UHD 본방송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시청자가 볼 수도 없다. ‘송출을 위한 시스템과 장비도 불안정하다.’ ‘정리된 제도도 없다.’ ‘여건 성숙까지 몇 개월 늦춰야 된다’는 다양한 논란에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이 최초 계획대로 2017년 2월에 시행된다. 지상파 3사는 8월 말 UHD 방송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에 대한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지상파의 신청을 수용했다. 일부 방송사에서 허가 신청과 더불어 ‘오전한 UHD 방송은 2017년 2월 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결국 지상파 UHD 본방송은 기존 일정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쯤 되니 국가의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대응 없이 일관성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는 700MHz 주파수를 배정하면서 정부와 방송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제반 환경에 따라 세운 일정기에 환경이 변한다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싶다.

이런 면에서 급변 일방적이고 옹고집적인 UHD 지상파 본방송 추진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일 처리로만 비춰진다. 오죽하면 세계 최초 UHD 지상파 송출이라는 타이틀보다 세계 최초 출속 추진이라는 오명으로 돌아올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있을까? 본질은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조라는 타이틀 홍보를 통한 산업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이미 계획된 일정만이 모든 것에 우선시되고 있음으로 보여 우려스럽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정을 관할하는 정부 기

관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분석하고, 합당한 해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는 바로잡고 변경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면서 올바른 UHD 지상파 방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상파 3사 또한 마찬가지다. 본명 문제와 관련해 있을지언정, 단순히 의견서 제출로 책임을 피해가겠다는 자세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정작 시청자가 볼 수도 없고, 추후 셋톱박스 등 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시청자에게 안내하고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과거의 합의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절대 앞지르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해야만 한다.

9월 1일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UHD 고화질 방송 적극 지원을 언급했다. UHD 지상파 본방송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언급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채 5개월여 남은 UHD 지상파 본방송을 앞두고 체계적 분석도 없는 불합리한 행정 철폐 효과가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박종석	편집주간 유주열
편집위원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주 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민정, 민서진, 전숙희	전 화 02-3219-5637
기획실 강동규	트 위 터 @kobetajournal
인쇄인 SJC정현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betajournal
	홈페이지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딤러닝 기반 방송미디어 기술 워크숍

일시 2016년 9월 7일(수)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
주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주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PEG포럼, 한양대학교ICT장비부SW플랫폼센터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삼성전자, LG전자

※ 사진 등록 : 2016년 9월 1일(목)까지 회원 150,000 비회원 180,000 학생 120,000
※ 당일 등록 : 2016년 9월 7일(수) 09:20~ 회원 180,000 비회원 200,000 학생 150,000

•회원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개원 회원 및 기관 회원(특별회원사)을 지정합니다.
•사진 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kibme.or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하신 후,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학회 이메일 또는 전화로 꼭 연락을 해주십시오. (계좌번호: 한국씨티은행 124-50884-249(예금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사진 등록 시 해당 내역을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온라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무통장입금/실시간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당일 행사장)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시 아래쪽 비교란에 ‘당일 신용카드 결제’를 적어주시면 사진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카드나 연구비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시에는 영수증만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회 사무국(Tel 02-568-3556)

시간	세부 내용	강사
09:20 ~ 10:00	등록	
Keynote Speech 최창 최유주 교수(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0:00 ~ 10:40	딤러닝 기반 비디오 분석 기술	장병탁 교수(서울대)
10:40 ~ 11:20	IBM Watson and Cognitive Business	채준원 상무(한국IBM)
11:30 ~ 11:50	개회식	
11:50 ~ 13:10	중식	
Session1 딤러닝 이론 및 미디어 응용 최창 노나수 교수(한양대)		
13:10 ~ 13:40	딤러닝을 이용한 다각도 얼굴 검출 및 식별 기술	염기문 책임(ETRI)
13:40 ~ 14:10	딤러닝을 활용한 영상 처리	김선주 교수(연세대)
14:10 ~ 14:40	최신 영상 인식 딤러닝 알고리즘 소개 및 전망	박성수 대표(DeepImagine)
14:40 ~ 15:10	딤러닝 기반의 오디오 분석	이영한 선임(KETI)
15:10 ~ 15:25	Coffee Break	
Session2 딤러닝을 이용한 서비스의 진화책임(ETRI) 왕정희(기부금 책임)(ETRI)		
15:25 ~ 15:55	IBM Watson 소개	김현준 전문위원(한국IBM)
15:55 ~ 16:25	영상 정보의 지능화된 분석과 활용	진인택 부장(LG CNS)
16:25 ~ 16:55	아마존웹서비스의 딤러닝 전략과 플랫폼 서비스	정우진 이사(아마존웹서비스)
16:55 ~ 17:25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송 미디어 영역 적용 사례	이호철 팀장(KT)
17:25 ~ 17:35	경품 추첨	

※ 등록비에는 자료집 1권, 중식, 커피 및 음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무연 및 학예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 2017
www.kobashow.com



27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